

## 충주 도시탐색

### Investigating the City of Chu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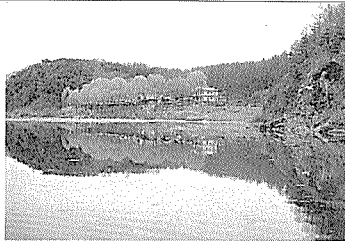
황재훈 /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by Hwang Jea-Hoon

####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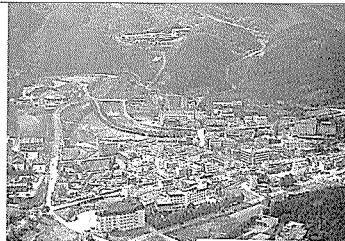
충주시는 주덕, 가금의 좁고 긴 소평야를 포함하는 충주평야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계명산, 남산, 대림산, 천등산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대부분 오랜 침식기간을 거친 노년기의 저산성 구릉 침식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충주시가지의 3/4정도를 우회하며 특징있는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충주댐과 연결된 수변공간은 시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형성하며, 남서쪽의 지류의 일부가 호암지와 연계되어 중요한 시의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에 위치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수변공간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양하고 충분하여 내륙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산악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산과 강의 풍부하고 균형 잡힌 자연환경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하고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충주는 약 15만의 인구를 가진 중급 규모의 개발잠재력을 가진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지류가 만나는 지역을 정점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동서방향의 자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남북방향으로 도시발전축이 형성되었다. 북쪽으로는 시청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적 기능과 그 주변을 신시가지로 개발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자연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시설과 관광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의 구성도 기존 시가지의 경우 충주천 북개도로를 중심으로 좁고 부정형에 가까운 격자형구조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지역의 경우 평평한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격자형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국도 3호선과 국도 38호

선이 광역가로망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도심지역은 대봉로, 예성로, 성남로의 남북축과 달천로, 중앙로의 동서축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가로망에서 중요한 교차로는 로터리의 형태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량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호암로중 일부구간과 성남로, 예성로, 중앙로 구간은 양방향 2~4차선의 중심도로임에도 도로폭의 협소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이용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 면적중 80.94%가 그린벨트와 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각각 12.63%, 4.16%, 2.2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저층위주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9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금릉, 용산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개발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건설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의 질은 향상시켰으나 도시경관을 파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으로 자연환경을 시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필지, 가구, 건축물 규모등 도시구성입자(Urban Grain)의 비례 또한 깨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주는 획일적이고 큰 스케일은 저층 주거지역이 주는 작고 다양한 공간구성입자와 어울리지 못하고 위압적인 형태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동에 위치한 럭키아파트의 경우 도시경관파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구릉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용적률로 건설되어 14층의 높이지만 실제로는 20층 이상의 시각 차단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서쪽 진입로에서 볼 때 충주의 주산(主山)을 가리면서 주변의 낮고 작은 건물군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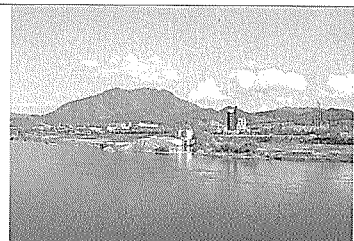
이런 아파트군의 개발과는 달리 새로운 주거형태의 시도가 돋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원도시형 주택단지조성이다. 충주호로 가는 목벌의 남향 구릉지에 위치한 단지로 아직은 작은 규모(40여 세대)이고 건축적으로 충분한 특성을 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외국의 비버리힐스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 상류사회의 주택지로써 손색이 없게 느껴진다. 현재는 같은 형태의 소규모 단독 주택으로 계



충주 탄금대



충주 수안보관광지



충주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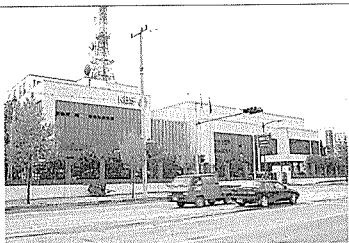
획되어 위치적 장점을 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완만한 구릉지 경관이 주는 자연적 조건과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면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또한 지역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상업지역의 경우 중앙로를 중심으로 부민로타리와 (구)시청앞 로타리사이에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계획적 뒷받침이 없었던 구도심으로써 5~6층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이고 건축적 형태와 언어가 기능만을 바탕을 두어 여타 중소도시의 중심부와 마찬가지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상업건물의 경우 그 도시의 건축적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과 설계가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단핵의 도시공간구조가 가지는 도심지의 절대적 의존성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보행공간이 충분치 못하며, 그나마 있는 공간도 도로시설물이나 상점들에 의해,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있어 도심의 기능성과 보행의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규모는 자전거생활권으로 적당하여 이에 대한 공간과 시설이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심공간 이용패턴으로는 자전거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히도 명동이라고 불리는 보행자 전용공간이 있어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충주의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거리로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전체의 길이 또한 그리 길지 않아 확장이 필요하고 보행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가지는 가로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공업지역은 충주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으로 시가지와 분리되어 소음, 공해의 시내 유입이 적고, 주위의 강으로부터 풍부한 공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하여 공장입지 조건이 양호하다. 또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아 물류수송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해 소규모의 공업형태를 하고 있으며 공단의 공간구조가 산업공단의 면모로 계획되기보다는 지역적 규모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중부권의 위상의 제고와 업종재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공단보다 북쪽에 대규모의 새로운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근래에 주덕을 첨단과학단

지로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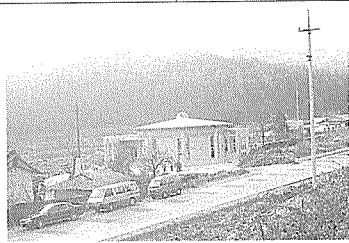
### 도시공간과 도시건축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공간으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적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외부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은 탄금대로 두 개의 강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역사적 가치는 물론 경관성이 뛰어나 전망대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탄금대 주변에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함께 자전거도로망이 갖추어져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어 충주시민들의 휴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탄금대를 굽어쳐 흐르는 남한강의 경우 강폭이 넓고 유속 또한 완만하여 수변공간 개발(Waterfront Development)로 국민관광지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의 역사성과 특이성으로 인한 탄금대와 직접 연관된 개발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계하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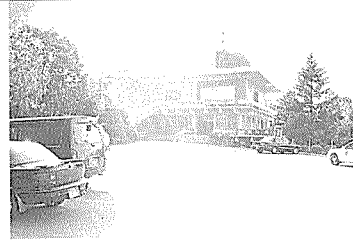
호암지는 탄금대와 함께 특징적인 외부공간으로써 자연환경속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공공공간이다. 탄금대가 주는 동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호암지는 산책과 낚시와 같이 정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측의 우륵당과 함께 전통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호암지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경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호암지의 북에서 우륵당의 모습과 뒷 배경으로 깔린 자연지형이 물에 비추어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산중턱에 위치한 우륵당의 배치는 형태적 전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배치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말았다. 자연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전통적 배치양식은 산 중턱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한 채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 또한 이 공간과 호암지와 연계성이 없어 공간적, 형태적 단절감을 가져 오고 있다. 탄금대와 호암지가 충주시의 전통적 도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청의 경우는 현대적 도시공간의 상징으



충주 KBS



충주 삼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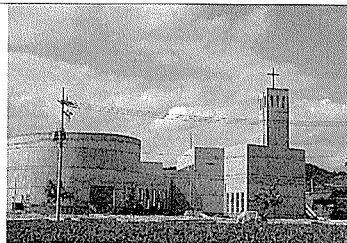
충주문화원(탄금대)

로 여겨진다. 행정적 중심공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중심지를 표방하고 건축된 시청은 단순히 건물만을 보면 다양한 건축적 언어와 함께 공간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도시조직(Urban Tissue)을 볼 때 스케일의 오류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통 시청의 경우 다른 건물과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계획하여 상징성을 높이거나 혹은 주위의 건축스타일을 배경으로 공간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건물로 이르는 접근로의 도시 그레인(Urban Grain)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기능 또한 위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실패한 도시 건축이다. 그리하여 마치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보이며 도시규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룡으로 인식되어 청사부근의 접근과 공간이용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도시공간과 도시건축물은 종합운동장과 외부공간이다. 충주에서 가장 큰 인공적 외부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시청앞 광장으로 기능이 부여된 공간보다 부대공간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도와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이고 주변환경과 연계가 되지 않는 공간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운동장앞의 경우 주변의 주거지역과 시내중심에서 가깝고 다양한 지형지물이 있어 자연스러운 시민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어 충주에서 가장 도시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거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의도된 기능과는 별도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만날거리들이 제공되면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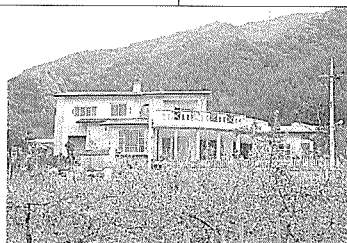
충주는 전형적인 한국적이며 특징있는 중부내륙 도시이다. 우선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배산임수의 개념과 맞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대도시에서 느끼는 복잡함이나 부산함이 없이 한눈에 잡히는 도시경관이 친근감을 가지게 한다. 특히 도시를 들어가는 육교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원주/제천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원경을 유지하면서

양쪽에 펼쳐지는 대조적인 경관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산을 배경으로 하는 정돈된 도시의 모습과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남한강과 어우러진 전원적 경치는 한 번쯤은 방문하거나 머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충주의 가로수 길에서 오는 상직적인 입구의 개념을 충주는 남한강을 건너 오면서 인간의 시점을 띄워 시가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입구에서의 경관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관은 도심지를 지나 충주호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 경사도와 전원적인 풍경을 가진 지역을 지나 마즈막재에 다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시내의 경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강을 넘을 때의 짜임새 있는 모습과는 달리 약간의 인가에 가려져 넓은 평야위에 펼쳐진 모습은 자연스러운 구름지와 멀리 굽어 흐르는 남한강의 지류가 서로 어우러져 낭익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오래동안 머물지도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풍경들은 고향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생각은 저자 뿐만 아니라 어느 외지에서 그저 충주가 좋아 정착했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그리 도시답지 않으면서 도시의 요소를 갖춘 도시공간의 특성을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충주는 이상한 매력을 가지는 도시다. 그저 평범함이, 그리고 소박함이 사람을 푸근하게 만든다. 내륙으로는 보기 드물게 산과 물이 균형잡힌 자연환경을 가지고 개발낙후의 뒷전에서 벗어나 막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도시이다. 자연 조건과 함께 중원의 문화재 공간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들과 연계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간들이 새로운 지역성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적 공간과 비계획적 공간이 부딪치며 전통과 현대의 모습으로 대립되고, 경제력의 한계력으로 도시건축의 외부지향도가 높고, 상징적 공간과 상징적 건물의 부재는 뒤떨어진 도시기하구조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곳 전문가들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중소도시의 모델로의 탈바꿈이 가능한 그런 도시이다. 따라서 충주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도시다.”



충주 엄정교회('96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충주 남산 안씨주택



충주 신도시 가로공간